

독자권익위원 칼럼

박봉순

독자권익위원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술은 독일까? 약일까? 먹는 것으로 하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먹고 난 이후의 상태를 보면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옛말에 손님 초대 해 놓고 밥상에 술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초대가 아니라고 했으니 술이 음식은 아니지만 밥상에 같이 차려진 것으로 보면 같은 콜라보가 되지 않을지도 싶다. 술의 기원을 살펴보면 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는데, 수렵 채취시대에 자연에서 나는 과일이나 자연적으로 발효돼 술이 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추정이다 아닐까 싶다.

절약이 당분간 함유한 과일이 땅에 떨어져 상처가 나거나 과육과 공기중의 야생 효모가 자연적으로 접촉돼 증식과 함께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함유하는 액체, 곧 술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숭이가 어느 공간에 저장해둔 과일이 발효된 것을 우연히 맛을 본 인간이 이 신비한 액체에 매료돼 만들어 마시면서 여러 형태로 발전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설도 있다. 처음에는 과일의 발효로 인해 알코올이 생성된 것만 섭취하던 인간이 야생 벌꿀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야생 효모에 의해 발효를 일으켜 벌꿀 술(펄주)이 되고, 양이나 말의 쪼터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몇 술(유주)이 된다는 것이다. 발효의 비밀을 깨닫은 인간이

술(酒) 이야기

필요에 의해 기후와 풍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 모든 생물들이 알코올이라는 신비의 음료를 제조해 마시게 됐음을 여러 문헌을 찾아 보면 알 수가 있다.

술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5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포도주를 빚었다고 한다.

당분이 많은 과일이면 무엇이든 과실주로 담글수 있었는데 특히 포도는 당이 많아서 과실주 담그기에 가장 알맞았고, 농경시대에 들어와서는 곡류를 재배 생산하면서 곡식으로 빚은 양조주가 생겼다. 곡물주를 빚으려면 전분의 당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밀등 잡곡으로 누룩을 만들어 알코올이 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 아시아권이 술 빚기에 풍부한 자연 재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술의 역사는 삼국시대에 여성이 곡물을 빻아서 썰은 것을 발효 만든 ‘미인주’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 역시 곡물의 전분이 침숙에 효소에 의해 당화 되어서 생긴 것 이기 때문에 양조주로 봐야 할 것 같다. 현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아마 소주가 아닐까 싶다. 매일 전국에서 엄청난 양의 소주가 판매 되고, 국민주로 사랑을 받으면서 소주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 소주가 우리 생활의 한쪽 곁을 차지하면서 애주가들과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애뜻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좋아도 소줏값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소주 한잔으로 고단함을 푸는 서민들의 삶을 생각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고 많은 사고와 일상의 폐해를 끼치는 도구로 사용

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들의 음주가 위험에 노출되고, 음주로 인한 한번의 실수가 ‘패가망신’되는 사례가 종종 사건화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술이 독이 될 수 있는 나쁜 사례다.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 경찰의 집중단속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번의 음주 적발은 직장을 잃게되고 사회에서도 인정 받질 못하며, 더욱이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형량이1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는다.

흔히 술과 관련된 문제를 건강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음주로 인한 문제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흡연은 몇 년 전부터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해 공공장소를 비롯한 여러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원치 않은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가 인정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받아야하는 간접폐하나 사회적 비용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생활 주변에 관주 문화와 술잔잔 해야지 친해지고 소통이 된다는 생각이 널리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인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논어의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아침 해장술이 좋다가나, 영웅호걸은 술을 바가지로 먹는다는 말들은 ‘주당’들의 ‘객가’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조승유

송정 역세권 발전 범시민운동본부
사무총장

하루 평균 2만5000여명이 이용하는 광주송정역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남부 호남의 관문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광주 시내 도심으로 통하는 지하철 1호선이 연결돼 관통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이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광주 전역으로 교통망이 연결된다.

또 송정역 인근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등 국제공항이 자리해 해외로 나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여기에 목포항과 완도항, 진도항 등 항만과도 쉽게 연결되어 육해공의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지리적 배경과 교통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놓고 뻗은 고속도로도 역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수도권을 향해 연결되고, 호남고속도로도 동남향으로 가면 담양분기점에서 대구·경북으로, 순천에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경남으로 통한다.

가까이로는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가 국도1호선을 대체할 만큼 주요 교통축이 되어있다. 앞으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까지 완공되면 그야말로 광주송정역은 전국을 두 세 시간 권 안에 두는 출발 시점이자 호남의 교통 허브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KTX가 개통하고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SRT까지 추가 개통하면서 광주송정역은 명실공히 광주의 상징이자 호남의 관문으로 탈바꿈하였다. 호남고속철도가 확장되고 전철화 사업 등이 추진되면 광

주송정역의 하루 이용객은 2030년 3만명을 훌쩍 넘어 4만명에 가까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는 광주 송정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송정 구도심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광주송정역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광주와 호남의 첫인상이지만 현대도시의 주요 철도역과 비교해 낙후돼도 너무 낙후돼 있다. 단순히 기차가 멈춰다 가는 정도에 그친 근대식 역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사람들이 광주송정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예게, 이게 다야?”라고 실망스런 표현을 감추지 못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광주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의 광주 첫인상은 ‘불 것 없는 재미없는 곳’으로 머릿속에 각인돼 버리기 십상이다.

광주송정역 주변에는 1970~80년대 풍의 여인숙 등 노후건물이 산재돼 있고, 철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을씨년스러운 폐건물들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다. 송정역세권개발은 현재 3600㎡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을 단순히 조금 확장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송정역 인근을 휘감아 흐르는 황룡강과 주변 어등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활용해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광산구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송정역 개발이 서울 용산역이나 광명역, 동대구역 등과 같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인프라 시설로 건설돼 도시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어 행정과 문화, 쇼핑, 관광, 여가, 레저, 교육, 공공업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복합기능을 갖추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송정역세권 발전방안과 함께 이전이 확정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의 개발 방안이 제시되어

야한다. 송정역세권이 확정되고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황룡강에 맞닿아 12만평에 달하는 현 금호타이어 공장부지의 개발 방향과 계획수립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여론과 숙원을 당국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앞장 서고 있다. ‘송정역세권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광산구 지역 내 22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2023년 11월 13일 광산구청에서 광주송정역세권 발전과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해 출범하였다. 이 단체는 광주 송정역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송정역세권발전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14일 광주시장 면담한 자리에서 전달하고 송정역세권 개발과 금호타이어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앞서 지난해 11월 4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주민공론장에 참여해 ‘공간혁신구역지정 방식’으로의 발전 방안 제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 송정역 일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송정역세권 개발은 이제 광주 발전과 신도시 개발의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고 본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은 지역발전의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야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시민의 숙원이었던 ‘복합쇼핑몰 건립’처럼 ‘송정역세권 및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이 이번 조기 대선 지역발전 공약에 제시되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지 바란다. 더불어 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진영에서 송정역세권발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공약에 담아 주어야 한다. 송정역이 진정한 남도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기다려 본다.

무심한 일상 속에서 아주 짧은 ‘기억의 시간’이 솟아나는 순간들이었다.

풍두레 회원인 주태석씨(54)는 “비·눈, 강한 바람, 명절 아침에도 당번을 정해 빠짐없이 나왔다”며 “하루라도 기억하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다시 거리로 나온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10년 가까이 ‘습관’처럼 이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단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상실을 마주한 사회가 가져야 할 태도라면 더욱 그렇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 많은 것이 변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다르지 않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을 외치지만, 안전은 여전히 제도보다 양심에 기대는 형국이다.

풍두레처럼 10년 가까이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기에 그날의 교훈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기억은 기록을 넘어, 행동으로 남아야 한다.

OPINION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사설

광주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1호’ 되길

광주중앙근린공원이 국내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고 광주시와 민간 시행업자도 여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하나로 지역최대 도심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광주중앙근린공원은 1.2지구를 포함해 약 279만㎡ 규모로, 광주 도심의 중심축인 서구 금호동·쌍촌동·포암동·화정동 등에 걸쳐 있다.

광주시와 특례사업 시행사인 빔고를 중앙공원개발㈜은 이곳을 국가대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조성한 기준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는 도시공원과 달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공원문화와 높은 수준의 국토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데다 양질의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16년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은 없다. 이는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면적 300만㎡ 이상 △공원 전체 부지 지자체 소유 △8명 이상의 전담조직 구성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 등의 공원 관련 시설 확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꾸준히 관련 법 개정을 요구. 최근 국회에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 국토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 하반기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을 두고 광주 중앙근린공원과 경쟁을 펼칠 후보로는 부산 을숙도~맥도생태공원, 인천 소래습지, 대구 두류공원 등이 있다. 이 중 광주중앙공원이 부지면적이 가장 넓고 다른 후보지와 달리 모든 부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돼 광주가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전국 최초 3대 국가공원 보유 도시가 되길 바란다.

‘검은반도체’ 김, 최대 수출 실적 거뒀지만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우리나라 김이 인기가. 올해 1분기 K-푸드 열풍을 타고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를 보면 나날이 높아져 가는 김의 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은 28100만 달러(402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1% (2억3200만 달러)나 늘었다. 이 기간 김 수출량도 1만161t으로 전년(9456t) 보다 7.5%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가장 많은 579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어 중국(5110만 달러), 일본(3440만 달러), 태국(3420만 달러) 등 순이었다.

중국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86.5%나 증가했고 미국·태국·일본도 각각 21.6%·15.9%·7.2%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간편하게 간식으로 즐기거나 반찬으로 활용되는 조미김이, 중국에서는 아무런 양념이 없는 상태로 건조된 마른김이 잘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최대산지인 전남도 이같은 수출 호조세에 일익을 담당했다. 전남은 지난해 1억4600만 달러여치의 김을 수출해 전년 대비 50.7% 증가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문제는 수출은 호황이지만 원재료인 산지 물값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폭 떨어져 어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025년산 전남의 김 누적 생산량은 지난 9월 현재 48만 9585t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8만5081t보다 10만4504t 더 많이 생산됐다. 이 때문에 위판가격은 kg당 15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kg당 1937원)보다 20% 가량 떨어졌다. 위판되지 못한 불김 약 6000t을 폐기하는 일까지 했다.

여기에는 신규 양식장 면허가 확대된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불법시장이 증가한 것이 공급과잉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올 1~4월 불법 양식시설 적발 건수는 39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41건)를 근접하고 있다. 수출 호자 ‘김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전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지)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